

‘農道 전남’ 잇따른 농기계 사고 대책 없나

고령화 탓 60~80대 노인이 74.6%...경운기 사고가 절반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보다 6배 높아 안전수칙 등 예방책 필요

노인들이 젊은층을 대신, 농업 활동에 나서면서 경운기 사고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따른 부작용으로,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2084건의 피해자 중 74.6%가 60~80대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 중 ▲80대 182명(8.7%) ▲70대 876명(42%) ▲60대 499명(23.9%) 피해자가 상당수를 차지했고 ▲50대 326명(15.6%) ▲40대 144명(6.9%) ▲30대 34명(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농업 현장을 노인들이 지키면서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로 인한 노인 피해자도 급격하게 추세다.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장흥군 장흥읍의 한 농로에서 A(여·76)씨가 남편이 운전하던 트랙터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경찰은 남편이 몰던 트랙터를 뒤따르던 A씨가 오르막길에서 시동이 꺼져 미끄러진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날 오후 3시께 화순군 춘양면의 한 시골길에서 경운기를 몰던 A(82)씨가 2m 아래 논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6시50분께 해남군 옥천면에서 김모(80)씨가 운전하던 경운기가 후진을 하던 중 비닐하우스를 들이쳤다.

이 사고로 김씨가 다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최근 4년간 농기계 사고 중 경운기 사고가 1066건(51.1%)에 달해 절반을 넘었고 ▲트랙터

125건(5.9%) ▲예초기 119건(5.7%) ▲콤바인 5.9% 등으로 파악했다.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순발력이 약한 노인들이 농기계를 다루는 점 ▲농기계 특성상 별도의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소방본부관계자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이 약 6배 정도 높은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특단의 사고 예방 대책이 없는 만큼 야간 운전시 전조등을 잘 켜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사고 발생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태풍 비켜가니 무더위...광주·전남 주말엔 ‘흐림’

제 8호 태풍 ‘너구리’가 한반도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물러간 가운데 광주·전남은 주말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13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주말까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으며 일요일인 13일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고 10일 예보했다.

장맛비가 그친 뒤 한 주간은 비소식이 없는 가운데 대체로 무더운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인 11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19~32도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이날 예상되는 바다의 물결은 0.5~2.0m. 기상청은 천문조에 의해 17일 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주의가 요구된다.

주말인 12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기온은 19~30도로 덥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대체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인 13일 장맛비가 온 뒤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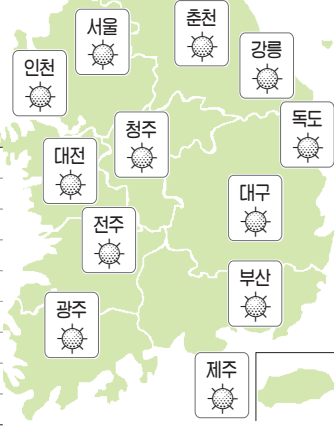
해돋이 05:27 해질 19:49
달출 18:27 달짐 03:59

빨래 날기 좋은 날

주말까지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엔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1/31	보성	맑음	20/31
목포	맑음	22/28	순천	맑음	23/32
여수	맑음	24/30	영광	맑음	21/29
나주	맑음	21/31	진도	맑음	21/27
완도	맑음	22/30	전주	맑음	21/32
구례	맑음	20/32	군산	맑음	22/29
강진	맑음	21/30	남원	맑음	20/32
해남	맑음	21/29	축산도	맑음	21/26
장성	맑음	19/31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부	면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서부	면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생활지수

식중독	80
운동	40
빨래	90

주간 날씨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	☁	☀	☀	☀	☀	☀
21/29	23/27	23/29	23/30	23/30	23/29	23/30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광주 상일여고 ‘자공고’ 재지정

시교육청, 지정 연장 심의 통과...이달 말 교육부 제출

송원고 자사고 지정도 25일께 결정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교장 김진구)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로 사실상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송원고의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0일 상일여고가 제출한 자공고 연장신청서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공고 기간을 연장하는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공고 기간 연장은 평가 결과 70점 이상 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상일여고는 6개 영역 23개 지표별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서 80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학부모 모두 교사의 수업 준비와 열정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구성원의 88.7%는 자공고 지정 기간 연장을 강하게 희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상일여고에 대한 자공고 지정 기간 연장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면 상일여고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자공고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김진구 교장은 “내년부터는 재정 지원,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등 자공고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지만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자공고에 대한 자긍심도 강해 연장 신청을 했다”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상일여고의 전통과 자공고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상일여고가 자공고로 재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2권역(광주, 전남·북, 경기, 충남) 자사고 평가팀은 지난달 말 송원고에 대한 현장방문 평가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오는 25일께 결정할 방침이다.

자사고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는 60점이지만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은 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돼 있다.

한편,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송덕고가 있으며, 자공고는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등 3곳이다. 이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송원고와 상일여고 2곳이며, 나머지 학교는 내년엔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다시 우리로 10일 낮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승마장에서 승마용 말 3마리가 탈출했다. 광산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은 30여분 만에 말을 포획, 승마장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대낮 승마용 말 3마리 탈출 소동

인근 도로 활보 1시간만에 붙잡아

대낮에 승마용 말 3마리가 탈출해 1시간 만에 붙잡히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어등산승마클럽의 암말 1마리와 수말 2마리가 승마장 울타리를 뛰어 넘어 인근 도로를 휘젓고 다녔다는 것이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

우리를 뒤흔치던 말 3마리는 승마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 10여명에 의해 포획돼 모두 승마장으로 돌려보내졌다. 포획되기 전 말 1마리는 승마장 인근 이면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다.

경찰은 “말 사육장 옆에 새로 난 도로 통행량이 최근 크게 늘면서 방지막 소음이 생긴 탓에 말들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뒤흔치던 것 같다”는 승마장 직원들의 분석이라고 소동 배경을 전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

www.kores.or.kr

자원으로 국민생활을 밝힙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강국 대한민국의 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세계를 무대로 만들어갑니다

핵심요 불연속 구리 프로젝트, 호주 스프링필드 유엔탄 프로젝트, 미다가스카르 임버토비 니켈 프로젝트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세계 20위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산업원료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